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7 월 14 일(다해)

연중 제 15 주일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오늘의 전례 ****

[입당송] **시편 17(16),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 이다

[제1독서] **신명 30,10-14**

[화답송] 시편 69(68),14 와 17.30-31.33-34.36 ㄱㄴ과 37(◎ 33 참조)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 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 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 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 리라.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 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 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 곳에 살리라. ◎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 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루카 10,25-37**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 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5	210, 217	159,498	402

연중 제 15 주일

성호경 하루 다섯번 이상 그읍시다 캠페인

어느 한 신앙잡지에서 읽은 글 입니다

얼마 전 우연치 않게 한 신부님의 아버님을 뵙고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아버님은 성체 신심이 특별하신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 년 전, 그 아버님은 신앙이 그리 강한 편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을 부정하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일하시는 곳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님은 그 화재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으셨고 3 도 화상으로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 병원 영안실에 넣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안실에 넣으려는 순간 일하는 사람들이 숨소리를 듣고 혹시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깨어보니 병원 침대 위에 뉘여 있었습니다. 입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코와 귀도 화재로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 상태였습니다. 그 병원은 수원에 있는 가톨릭 병원이어서 수녀님이 "혹시 영성체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 보셨고 아버님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셔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도 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체를 영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버님은 그 때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영성체를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잊고 사셨던 기도를 다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성모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모송을 바치면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힘을 주어 제대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처럼 방해하던 무리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성호를 긋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때부터 깊게 인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시는데 온 병원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 분은 어떻게 걷고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며, 사람들을 깨워 피하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 병실에 입원해 계신 모 주교님을 찾아갔는데 그 주교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불이 났다고 피하라는 그 아버님의 말에 "하느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려는 모양이네." 하시며 아버님께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그 아버님께만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시간 동안 아버님은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화상이 다 벗겨져 새살이 돋아난 것뿐만 아니라 없어졌던 코와 귀까지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그렇게 아침 미사에 당당히 내려가 성체를 영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주교님께서 다 목격하셨습니다. 그 아버님보다 뒤에 서 있다가 더 적게 화상을 입으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다 불구자로 계신 것을 보면 아버님의 기적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침미사에서 성체를 영하고 돌아왔더니 온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버님께 와서 혹시 여기 누워있던 환자 못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도 하룻밤에 그렇게 온전해진 아버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분의 아버님, 즉 팔순이 훨씬 넘으신 할아버지께서는 그 일이 있어서 아들 얼굴이 더 잘생겨졌다고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아들 신부는 우연히 아버지께 이런 기적이 있었던 병원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금도 실제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 수녀님과 이야기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뀐 것은 아버님의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냉담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열심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성체신심은 말할 것도 없고 성호경에 대한 특별한 신심이 생기셨습니다. 그 분은 성호경에 가톨릭의 모든 신비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체를 아무 감흥 없이 일상적으로 받아 모시는 이유는 아무 감흥 없이 성호를 긋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누구와 있건 간에 삼종기도와 식사 전후기도 할 때 성호를 크게 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을 배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당에 나오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성호를 긋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른다고 배교하는 것이고 심하게는 하느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성당에 나와서는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독성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님은 건설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초창기 규모가 작을 때였는데 100 억이 넘는 입찰에 도전을 해 보셨습니다. 당대 대기업 건설 회사들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입찰을 넣은 상태라 현실적으로는 입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입찰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셨고 점심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호를 긋고 삼종기도를 먼저 바치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서류를 좀 보여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버님의 회사가 그 일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방금 전에 서류를 달라고 하셨던 분이 중앙에 앉아계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누구도 그런 곳에서 성호를 긋고 식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며 그렇게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그 분께 일을 맡기기로 결정 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호 긋는 것 덕분에 사업은 크게 번창하였고 전국 몇 위 안에 드는 건설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일에 본의 아니게 관여되면서 사업을 접고 빚더미에 앉아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또 다시 절망에 빠져 자살을 결심하셨습니다. 산에 소주 한 병과 극약 한 봉지를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우선 소주를 좀 마시고 약을 먹으려는 순간 밥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자신도 모르게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그 때 문득 처자식도 있고 이런 신앙을 갖도록 기적을 일으켜주신 주님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성호가 또다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사업이 번창하면서 소홀하게 되었던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업을 실패하게 한 것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대자가 된 전직 목사님 4 분을 포함하여 지금도 한 해에 10 명 이상을 전교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성당에 다니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에 가든, 누구와 있든 항상 성호를 긋고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출신 본당 선교 왕이 생각났습니다. 그 분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들어오는 손님마다 “찬미 예수님!”하고 인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인데도 어떤 때는 일 년에 40 분이나 선교를 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톨릭교회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뿐인데 관심이 있었어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연결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부끄럽게 여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호를 긋는 것이, 사실은 작지만 큰 신앙고백이고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교, 먼 곳만 쳐다보지 말고 바로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오늘 7월14일 가족전례 및 친교순번은 박용철 아퀼로 가정입니다.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2차 헌금:**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 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북미주 성령대회 (24차 미동북부)**

일시: 2019년 7월 20일 (토) 오전 9시-오후 9시, 7월 21일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Felician College 262 S. Main St, Lodi, NJ 07644

강사, 통역: Ivo Pavic (이보 파비치) 신부, 남기옥(마르타)국제 통역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봉사회(crscne), **Tel:** 201 947 4717

■ **레지오:** 순교자들의 모후 pr. 레지오팀이 15년 4개월, 800차 주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지오 팀에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합니다.

■ **평일 미사:** 7월과 8월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 7월 28일 6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이상헌 요한 가정, 김국제 안드레아 가정, 김용상 스테파노 가정, 박현걸 요한 가정, 전광식 바오로 가정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 497.00

교무금: 김정일 7-9월, 박건 7-12월, 송정섭 6월, 윤여강 6,7월, 이수용 7월, 한기석 7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사 전 례							
날 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예물봉헌**	**복사**	**친교**
7 월 14 일	**연중 제 15 주일**	박상진	신 균	박용철	김주현 정캐롤	신 균 박용철	박용철 가정
7 월 21 일	**연중 제 16 주일**	윤성숙	정캐롤	김혜영	박민지 김민주	정지상 김혜영	정지상 가정
7 월 28 일	**연중 제 17 주일**	김진숙	조정원	윤성숙	김태현 한 빈	조정원 윤성숙	조정원 가정
8 월 4 일	**연중 제 18 주일**	박 건	배덕효안드레아 가정		김혜원 김세현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